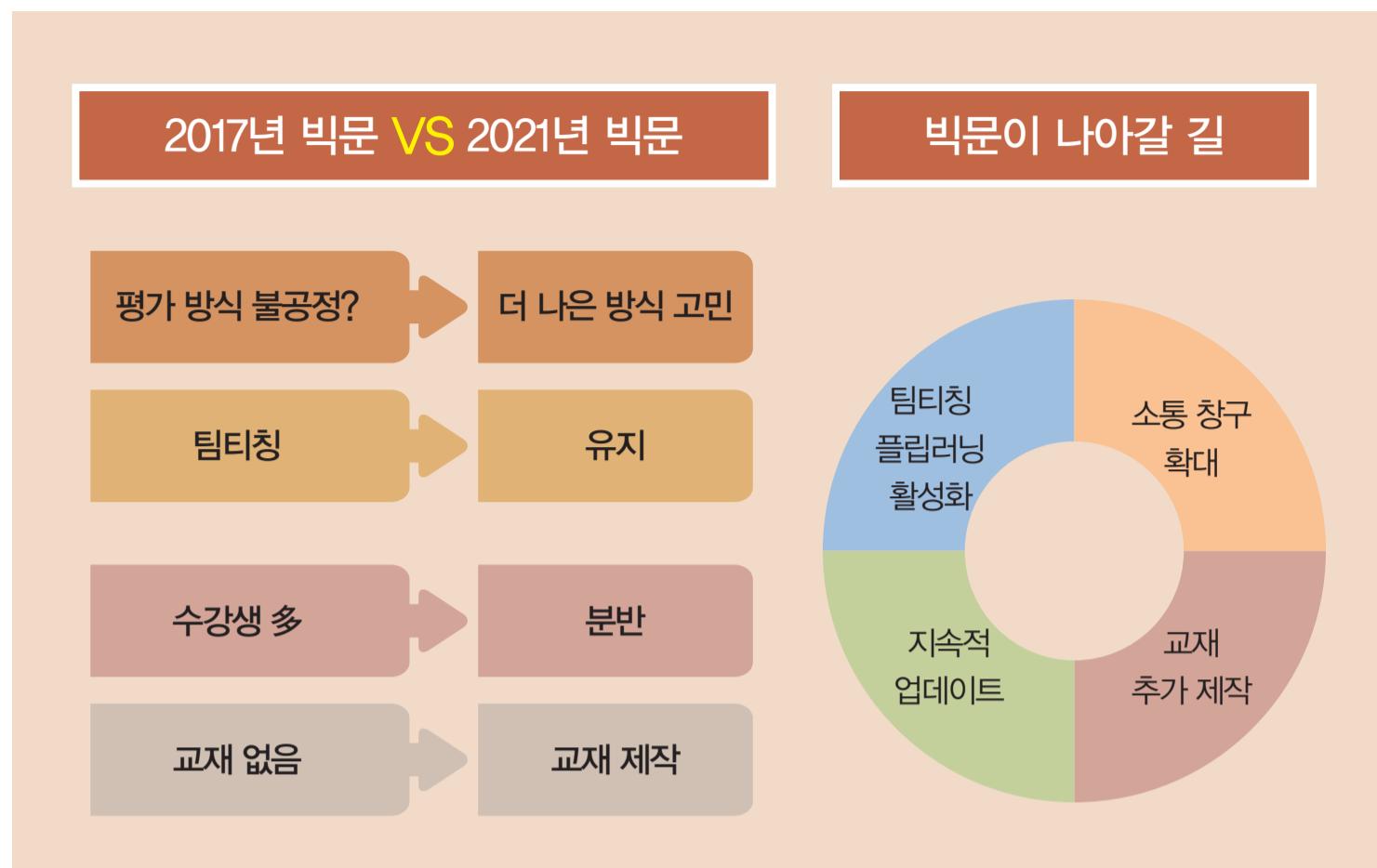


6 2017년 빅문 만족도 조사 그 후



빅문 강좌의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학생, “팀티칭 방식 혼란스러워” 교수, “분야별 차이 ‘팀티칭’ 대안”

▶ 1면 ‘빅문’에서 이어짐

‘원래 알던’ 지식 요하는 평가 방식 “문과 학생도 성적 우수”

2017년 설문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공통된 지적은 ‘특정 계열에 유리한 평가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빅문 과목은 모든 수강생이 강의나 교수진에 관계없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시험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에 따라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등장하는 일이 빈번해, 이 과의 기본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평가에 유리하다는 불만이었다.

빅문 교수진은 모든 수강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기는 하지만 성적은 한 반에서 매기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당시 답변과 같다. 후마 과학 중핵 PD 하상수(화학과) 교수는 “실제 문과 학생들도 빅문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는 비율이 높다”며 “딱 반반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시험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며 “문과에 특화된 주관식 문제 추가 등의 평가 방식 개선으로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각 분반마다

자체 시험이 진행됐다. 자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은 평가 방식과 관련된 문제도 일시적으로 해결된 듯하다. 올해 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초기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팀티칭은 빅문의 가장 큰 특징이다. 팀티칭은 여러 명의 교수가 팀을 꾸려 학습 지도를 하는 교육 방법이다. 빅문 과목은 팀티칭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지리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각기 다른 교수가 담당해 수업한다. 빅문을 수강 중인 김수현 (응용영어통번역학 2019) 씨는 “빅문 강의의 팀티칭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마다 교수님이 달라져 전체적인 내용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빅문 교수진들은 과학 분야 내에서도 각각의 내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팀티칭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상수 교수는 “화학 교수가 생물을 가르치거나, 지리 교수가 물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일된 교재가 없다는 것도 빅문의 주요 단점으로 꼽혔다. 이에 빅문 PD 교수들은 ‘빅뱅에서 인간까

지’를 집필했고, 각 반에 동일한 ppt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하 교수는 “빅문 교수진들은 ‘빅뱅에서 인간까지’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 더욱 알찬 교재를 만들고자 또 다른 책을 집필 중”이라고 말했다. 수용 인원 문제는 각 교수에게 여러 개의 분반을 배정해 해결했다. ‘한 강의에 너무 많은 수강생’이 문제라는 지적에 강의 당 수강인원을 반으로 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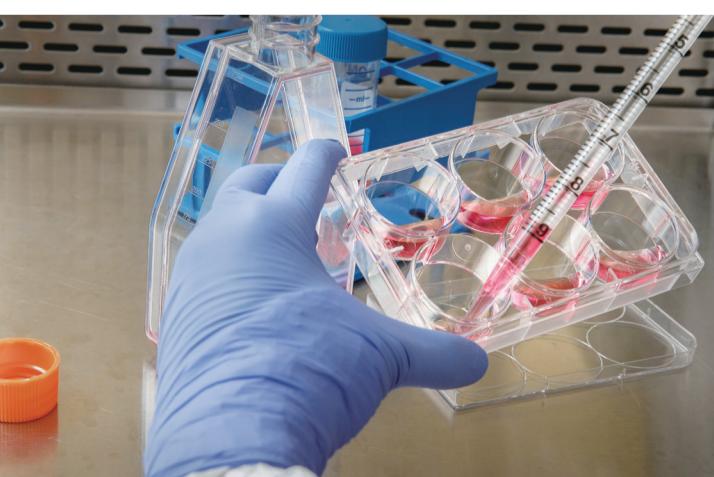
수업 난이도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다. 수강생 김수현 씨는 “문과생 입장에선 교수님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씨 외에도 많은 문과 출신 학생들이 빅

문 과목을 수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 교수는 “문과 학생들이 이 빅문 과목을 어렵게 느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각 교수님들께 수학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여 달라고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플립러닝에 한계 경희톡 등 플랫폼 활용해야

장성민 인하대 교수는 최근 ‘성찰 태도 촉진을 위한 플립러닝 기반의 비대면 수업 설계 및 효과 검증’ 논문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하면 학습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 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빅문은 이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을 통한 선행 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하는 방식이다. 2019년 2학기에 빅문을 수강한 강지원(행정학 2019) 씨는 “처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되는 빅문 강의.

(사진=언스플래쉬)

음엔 플립러닝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적응이 된 후엔 편했다”며 “플립러닝을 통해 집에서 해당 부분을 예습하고 교수님과 대면한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빅문의 플립러닝 방식은 전면 비대면 수업 지침에 맞닥뜨려 크게 변화했다. 현재는 예습 및 토의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 교수는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플립러닝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학생들 간의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우리학교의 빅문과 유사하게, 한양대는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과기철)’라는 과학 필수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과기철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철학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목이다. 학과별로 수업이 개설되기 때문에 전공 분야와 연계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수업 편성에 참여한 창의융합교육원 김성희 교수는 “과기철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철학적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수업”이라며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 의식을 길렀으면 한다”고 전했다.

빅문과 과기철은 모두 플립러닝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수마다 수업 방식도 다르고 실시간 소통에도 한계가 있었다. 한양대의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 위챗 등 온라인 메신저를 적극 활용해 강의 참여자 간 소통을 촉진했다. 녹화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진도 수업 시간엔 연락이 가능하게 대기해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했다. 전면 비대면 수업에서 플립러닝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경희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학생들이 예습을 위해 시청하는 분야별 강의 영상은 빅문이 중핵교과로 돌입하던 지난 2018년 제작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학계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하 교수는 “과학 분야는 해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만큼 애초부터 2~3년 주기의 강의 영상 업데이트를 목표로 했다”며 “디자인을 여름 방학에 새로운 강의 영상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막 오류에 대해서도 “첫 제작 당시에 자막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강의를 만들 때는 자막 검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